

## 제2회 청년작가실험전

### - '항성(恒性)'

현실비평연구소 선정 30대작가의 「대상전」과 우리시대 대표 작가 「초대전」으로 구성

- '恒性'을 매개로 작가의 작품세계를 들여다 본 실험성 강한 전시회 -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제2전시관에서는 실험성 강한 주제와 '강연과 전시'의 접목이라는 독특한 구성으로 지금까지 일반적인 형태의 전시회에 익숙해 있던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준 건축실험전이 열려 화제가 되었다. 현실비평연구소가 주최한 이 전시회는 시대양식과 지역양식 등 집합적 개념을 보유한 작가의 자기표상으로서의 양식개념이라 할 수 있는 "恒性"을 주제로 대상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한 「제2회 청년작가실험전」으로 보다 많은 대중과 문화영역에 건축정신을 확산시킨 자리였다. 특히 이번 실험전은 주최측이 자체 선정한 30대 작가의 '대상전'과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초대전'으로 구성,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항성"이란 주제를 매개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작가의 건축언어를 '전시'라는 무대를 통해 대중과 교류케 하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실험전에 참여한 작가의 작품소개와 전시평을 함께 게재한다.

#### ■ 초대작가

- 김태수(TSK 건축사사무소)
- 조건영(기산건축사사무소)
- 강남구(강남건축사사무소)

#### ■ 대상작가

- 강일원(리인건축연구소)
- 김태우(KCAF건축연구소)
- 박종원(Studio A · A · X · I · X)
- 정창석(예림건축사사무소)
-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 조용범(범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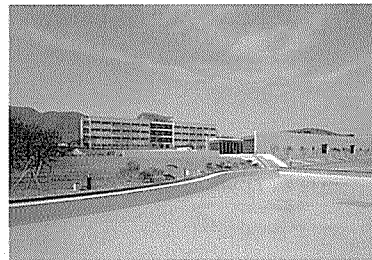
#### ■ 전시평

- 정진국(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 /초/대/작/가/전/

### 국민은행 연수원

김태수 / 서울대 건축공학과 졸업후 미국 예일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했다. 현재 김태수건축을 이끌고 있으며 주요작품으로는 마틴루터 킹 반 불록 집합주거를 비롯 록키힐 소방서, 교보 연수원, 서울시 마스터 플랜 등이 있다.



#### Tradition

"...땅의 외곽을 돌면서 주위 산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였고 서쪽, 북쪽에 있는 산이 대지를 병풍과 같이 품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남쪽에 있는 호수의 독에 와서 대지를 올려다 보니 호수, 경사진 대지, 그 위의 산들로부터 건물의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 11-1

대지면적 : 27,972.00㎡

건축면적 : 2,592.00㎡

연면적 : 2,999.00㎡

건폐율 : 9.27%

용적률 : 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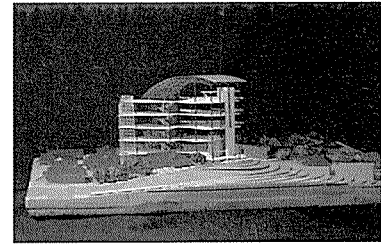
용도 :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조경면적 : 13,400.07㎡

### 민간환경센터

조건영 / 전남 화순 태생으로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거쳐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1990년 J & S로 '건축가협회상'을 수상했고, 1993년 '분당주택전'에 참가했다.

작품으로는 창원우림빌딩, 최익수 정형외과, 송추주택, Proposal of Seoul Gallery, 금남리 전시시설 등이 있다. 민예총이사로서 있으며 건축연구소 '기인'의 대표를 거쳐 현재는 '기산'의 대표로 있다.



#### 스토이시즘

"내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사회에 넘쳐 있는 부질없는 형이상학적 변색성에 대한 극단적인 콘트라스트였다. 이 콘트라스트를 상품화하고 싶었다.

그것을 건강한 허무주의라 불러도 좋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고 불러도 좋다. 요컨대 건축을 조금도 신비한 것이라든가, 형이상학적 변화성이 없는 '하나의 자명하고 평범한 상품'이라고 보는 데서 출발하지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아직 불량 상품이 판치는 중이지만, 건전한 수요가 없는 시장에서는 항상 그러한 법이다. 건전한 수요는 건전한 상품이 출하됨으로써 촉발될 수 있다.

내 자신의 생활태도에서 비롯한 것이긴 하지만 바로 이 '스토이시즘'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89-1

대지면적 : 967.4㎡

건축면적 : 501.37㎡

건폐율 : 51.83%

용적률 : 207.06%

연면적 : 2,368.61㎡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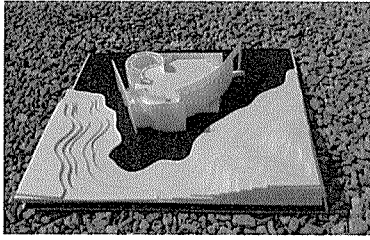
구조 : 철골조

용도 : 전시, 집회, 관람시설

지역지구 : 일반 주거지역

### 집한채(×화백의 집)

강남구 / 조선대 건축학과에서 공부했으며, 80년대 건축사사무소를 개소, 광주광역시 건축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강남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있다. 작품으로 실험연합회관, 방림성당, 화순주택, 성원건설사옥 등이 있고, 이 지역 젊은 작가로서는 드물게 「광주실험연합회관」으로 제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을 수상했다.



### 氣, Authenticity의 수용과 변형

“체험적 강흥을 Authenticity 측면에서 모던어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내 자신의 ‘恒性’이 된다. 시간과 삶을 재해석하여 ‘전통공간’에서 받은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작업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면 그 편안한 느낌, 이것이 본 프로젝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대지위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84-2

대지면적 : 765.2㎡

건축면적 : 331.84㎡

건폐율 : 4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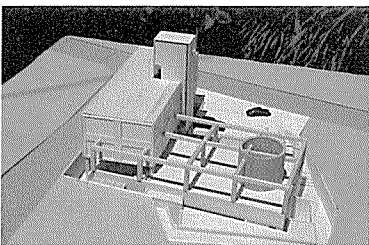
용적률 : 73.84%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대/상/작/가/전/

### 목감동 성당

김태우 /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1989년 아뜨리에 KCAF를 개설하여 오늘에 이른다. 대한주택공사가 주최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계획’ 현상설계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고 이후 줄곧 건축에서의 ‘퍼블릭 스페이스’와 관련하여 지속된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 ‘참 뜻 Significance’ 과 ‘숨은 뜻 Implication’

“언뜻 보기에는 부조리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정신’ 과 ‘육체’ 라는 ‘존재의 이중성’은 현실이라는 인간 속에서 심리와의 코드를 통해 ‘의미생성’의 공간으로 확보된다. 그래서 ‘의미 meaning’은 이번 프로젝트의 특정 용도에서 사용할 두 개의 용어, 즉 ‘참뜻 significance’ 과 ‘숨은뜻 implication’이라는 그 두가지의 존재를 하나로 똬똬 뭉치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부공간 속에서 ‘의식’ 과 ‘습관’이라는 또 하나의 이중의 존재로 남게 될 것이다.”

대지위치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179-2의 2필지

대지면적 : 1,082㎡

건축면적 : 454.73㎡

건폐율 : 42.03%

연면적 : 1,099.08㎡

용적률 : 4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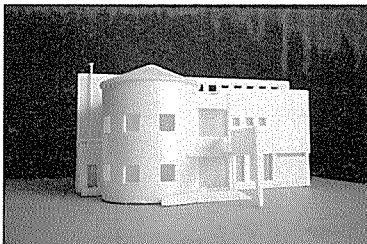
용도 : 종교시설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혜화원

정창석 / 전북에서 출생했으며,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 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85년 대한민국건축대전에 입상한 바 있으며 현재 건축사사무소 예림대표로 전북대, 벽상전문대학에 출강중이다. 작품으로는 이리농공전문대학, 전북도립교육청, 김제 H씨 주택, 전북 건축사회관 등이 있다.



### Natural Design, FRAME

“어린이를 수용하는 공간으로써 어린이 집은 평면적으로 옥외공간으로서 진입공간과 교실군을 연계하는 중성적 공간을

형태적으로 조금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관념속에서 플라톤적 원뿔체를 평면과 입면에 삽입하였다. 진입동선을 유도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으로써의 강한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대지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서산면 동화리 106-6, 100-4

대지면적 : 500.00㎡

건축면적 : 210.27㎡

연면적 : 408.83㎡

건폐율 : 4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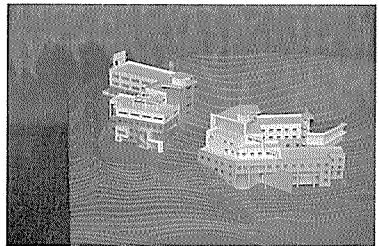
용적률 : 81.77%

지역지구 :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도 : 노유자시설

### 옥천 노인병원 · 요양원

조용범 / 1987년 경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원건축사사무소 등을 거쳐 현재 창원에서 건축사사무소 범건축의 대표로 있다. 작품으로는 부곡병원, 광복회관 경상남도지부, 진영한서병원, 의령병원, 교방동 K씨 근린생활시설, 대방동 K씨 주택, 석전동 근린생활시설, 누기병원, 창원시 상남동사무소, 아카데미 외국어학원, 김해 청림병원, 수정병원 등이 있다.



### Cross Over

“공간구성과 조형적 컨셉은 자연이다. 지형과 지세에 의한 분리와 대응의 관계에서 2개의 동으로 분리하고 각 동별로 자연스럽게 중정을 형성하여 전체공간의 구심점으로 구성하며 자연이 가지고 있는 형상과 동일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 중정 내부에서는 위요된 공간감을 형성하고 그 한면을 개방시켜 시야를 확보해 주므로서 자폐적인 공간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이어 자연과 호흡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 노인병원

대지위치 : 창녕군 개성면 사리 380

대지면적 : 4,641.00㎡

건축면적 : 1,298.04㎡

연면적 : 5,164.88㎡

건폐율 : 27.97%

용적률 : 90.55%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의료시설

지역지구 : 준농림지역

노인요양시설

대지위치 : 창녕군 계성면 사리 380

대지면적 : 4,604.00㎡

연면적 : 4,530.20㎡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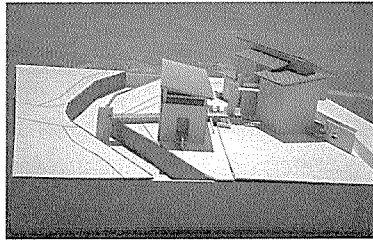
용도 : 노인요양시설

지역지구 : 준농림지역

## PHASE

박종원 / 85년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83년 제7회 공간대상 건축상 수상, 85년

제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입선을 비롯하여 85년 제4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특선을 수상했다. 간삼건축, 정원건축, 상지건축, 선진엔지니어링을 거쳐 현재, 건축사사무소 Studio A·A·X·I·S의 소장으로서 있으며 작품으로는 미도파백화점(상계점), 엠버서드호텔 개보수, 대연각호텔 개보수, 천안 망향휴게소, 한국은행 본점 별관, 포항 공과대학교, 계룡 신도시계획 등이 있고,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다.



### Unfolding of Phase

“물은 물대로, 옛날부터 흘러왔던대로 스며들었던대로 붙잡지 않고 놓아서 그대로 흐르게 했다. 계곡쪽의 농로 둑 자체도 흙과 돌맹이 풀이 대충 얼기설기 축성되어 있는 대로, 그래서 누수가 되더라도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축적으로 다른 방법을 첨가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흐르는 물, 누수되는 물을 잘 모아

서 진입부의 정점인 루가 있는 아래에 머물다 가게 했다. 주택은 브릿지형식의 복도를 통해 접근해서 현관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은 거실, 왼쪽은 안방을 배치하였고 정면쪽에는 2층의 아이들 방으로 오르는 계단을 만들어서 자녀들의 자기 영역에로의 접근을 쉽게 하였고 거실 쪽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인지가 되게 했다.”

대지위치 : 충도 공주군 반포면 상신리

대지면적 : 1651.07㎡

건축면적 : 154.99㎡

연면적 : 229.75㎡

용도 : 주택 및 도예공방

## 정신요양병원 「예증원」

강일원 /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전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고, 재학시절 ‘울암’이라는 한국고건축 연구모임에서 활동하였다. 우리 건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졸업 후 상경하여 시흥동K씨 주택, 목포 손치과, 마산 정영빌딩 등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현재 리인건축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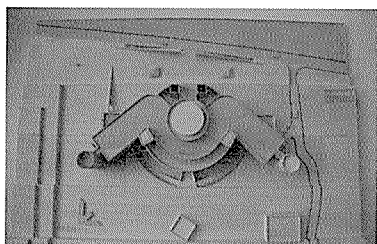
## 전시평 제2회청년작가실험전 “恒性”

### 눈높이에 서서

정진국 /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8·15에 맞춰서 건축분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전시회가 열렸다. 현실비평연구소 주최로 아홉 사람의 건축가들과 일곱 사람의 평론가들이 “항성”이란 주제 아래 모여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건축가가 참여하는 건축전시회는 특정한 건물 유형이든 시대적 쟁점이든 한시적인 주제에 따라 작품들을 선정하여 공개된다. 그러나 이 전시회의 주된 목적은 건축적 창작에 있어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건축가를 주목하여 건축의 한국적 풍토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과도한 형식 실험이나 난해한 이념 표출을 지양한 듯이 보이는 작품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항변한다. “모든 것이 변해야 산다.”는 최근의 기업형 유행어에 대립되는 주제를 의도적으로 담론화시키고자 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일상 생활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위한 거처로서의 건축이 문

화의 영역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문화를 있게 하는 터전으로서의 땅과 이 터전을 가꾸고 일구는 사람은 오늘날 심한 갈등과 모순 속에 처해 있다. 건축은 일종의 상품이 되어 서비스 산업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잉여가치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영웅적 모험주의는 사회에 만연하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이해의 부족은 십사리 문화의 식민성을 자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건축주, 관료, 사용자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건축가는 사실상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 간다. 건축의 존재 또 건축가의 존재는 위협받고 있다. 아니 책임을 회피한 건축가의 자초 현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실과의 긴장 아래에서 모색되는 건축의 생산이기에 앞서 건축가들은 각자의 이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은 더욱 더 높아만 간다. 건축과 건축가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말하자면 건축 발생의 근원과 건축가의 역할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것도 강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흰 가지를 바로 펴려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더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시된 작품에서 바로 이러한 점을 읽게 된다. 형태보다는



### Ritournelle로의 약도

“왜 ‘신체’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윤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왜 뻔히 부당하다고 보는 것일까? 스크린 공간 연출이라는 양적팽창이 카오스를 만들고 있는 현상에서 오래된 주제인 ‘신체’로 리토르넬로라는 배를 타고 귀환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성’이라는 중심이란 실체 그 점을 중심으로 가진 원을 그리는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대지위치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661-1와 2필지

대지면적 : 11,152㎡

건축면적 : 2,59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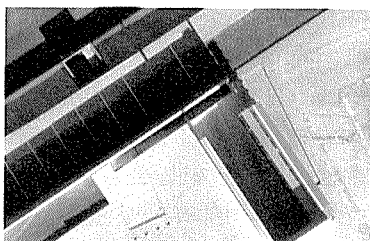
건폐율 : 23.26% 연면적 : 10,023.42㎡

용적률 : 89.88% 용도 : 의료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루가노 리포마 광장도시 발전사 박물관

조병수 / 서울출생인 작가는 작업을 하다 도미, 몬테나주립대 건축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와 스위스 국립공대에서 건축학과 도시설계를 공부하기도 했다. 1994년 「조병수 건축연구소」를 개설, ‘어떻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즉 어떻게 ‘경험’하고 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고 ‘인식’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그가 만들어가는 건축에 있어서 가장 관심있는 부분으로 ‘경험과 인식’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의미는 그에게 의미심장하다.



### Experience & Perception

“〈루가노시 발전사〉 기념관에서는 그 건축물이 위치할 대지와 호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 그리고 현재는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기념관과 더불어 루가노시와 시민

이 어떻게 친숙감을 얻어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작업에 있어 관심사였다. 뒤에 설명된 것처럼 여기서는 대지 자체를 기념관으로서 체험할 대상으로 보았고, 호수와 광장간의 관계는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몇 개의 의도된 돌발적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 온 광장의 역사성과 앞으로 오를 동안 발전해 갈 루가노의 밝은 장래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돌 벽과 바닥에 조각으로 과거의 일부가 파헤쳐지거나 새겨졌고 미래에 새겨질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빈공간이 할애되었다”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 11-1

대지면적 : 27,972.00㎡

건축면적 : 2,592.00㎡

건폐율 : 9.27%

연면적 : 2,999.00㎡

용적률 : 9.27%

용도 :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조경면적 : 13,400.07㎡

대지, 나보다는 우리, 오락보다는 문화, 말보다는 일, 첨단보다는 전통을 향한 가득한 열정은 건축을 제자리로 갖다 놓기 위한 작업일 것이다. 한창 주가를 오르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하기 보다, 손과 화면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영상의 재현으로 관람자는 부담없이 작품에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다. 이러한 가까이 서기를 하는 이유는 건축물이 결코 외형의 눈요기 거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상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전시 방법에서 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건물을 둘러싸는 외벽을 완전히 제거하여 골격과 공간을 노출시킨다든지, 각층을 분리해서 관람자가 구석구석 관찰하게 한 다든지 또는 눈의 접근을 위하여 아예 모형의 가운데를 잘라서 틈을 만든다든지, 건물 모형에 밀착하도록 하는 “눈높이”의 시점을 마련하고 있다. 효과는 즉각적이다. 즉, 지각의 대상이 벽, 천정, 바닥 등이 들어서고 남은 “빈 사이” 즉 공간임이 사실적으로 스스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은 유행이나 관념적 범주에서보다도 인간의 현실적 시선이 겨냥하는 과녁이며 건축으로 형상화되는 기초가 되는 것임이 드러난다. 외부에 길들여진 관람자를 내부로 끌어드리는 이러한 작업에서, 눈높

이는 관람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건축의 존재 가치를 일깨움과 동시에 현실 똑바로 보기 그리고 알기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눈높이=내부=존재’의 등식은 결국 무분별한 세태로 향한 자성의 소리이고 저항의 몸짓이기도 하다.

인터넷, 가상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컴퓨터와 정보화 시대는 근대 건축의 탄생을 가져온 기계 시대만큼 결정적이다. “더 빨리”, “더 많이”의 논리가 지배적이다. 생각하기보다 그저 보고 즐기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달콤한 속삭임에는 언제나 치명적인 독소가 공존함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국제화가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에 건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문화로서의 건축은 개인 및 집단의 고유한 자질을 갖추지 않고서는 얻어지는게 아니다. 외국어로된 관념적 수식어와 축약된 전시 조건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주제이지만, 전시회 “항성”이 전하려는 내용은 분명하다. 문화적 정체성으로서의 “항성을 발견하고, 항성을 발명하자”는 것인데, 이는 항성이라는 문자 뜻 그대로 한시적인 전시회로 끝낼 일이 아니다. 건축가는 일상적 작업으로 건축을 생각하며, “날마다 수레를 끄는 말”이 될 필요가 있다.